



K콘텐츠가 바꾼 프랑스 소비지도

넷플릭스 역할 주목... 한국 작품 접점으로 넷플릭스 압도적 우위

프랑스 K-콘텐츠 시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작품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프랑스 K-박람회'에서 K-콘텐츠 확산 효과를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승현 넷플릭스 한국 부사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세션에서 "전 세계 넷플릭스 구독자의 8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며 "프랑스 K-콘텐츠 시청층의 83%는 한국 작품을 접하는 주요 경로로 넷플릭스를 꼽았다"고 말했다.

K-콘텐츠 확산이 식품·관광 등 연관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형석 농심 유럽법인장은 "K-콘텐츠 확산 영향으로 유럽 시장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며 "이제는 프랑스 유통업체들이 먼저 한국 제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화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장은 "파리의 K-뷰티 매장과 한국 식당, 한인 슈퍼마켓의 주 고객층이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K-콘텐츠 수출 증가가 화장품·

가공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져 평균 1.8배의 동반 성장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K-콘텐츠 성공 요인으로 빠른 유행 확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 정부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 일관된 정책 기조 등을 꼽았다.

이번 세션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6 프랑스 K-박람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콘진원은 이번 프랑스 행사에 이어 오는 9월 멕시코에서도 'K-박람회'를 개최해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빅히트뮤직 제공

BTS, 월드투어 '아리랑' 88회로 확대

자카르타·볼라칸 1회씩 추가 일본·중동 투어도 추가 예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필리핀 볼라칸 공연을 1회씩 추가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지난 17일 밝혔다.

이로써 '아리랑' 투어는 총 88회로 확대됐다.

방탄소년단은 자카르타 젤라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오는 12월 26~27일(이하 현지시간) 양일에 이어 29일 한 차례 더 무대에 오른다. 볼라칸 필리핀 스포츠 스타디

움에서는 내년 3월 13~14일에 더해 16일도 팬들 앞에 선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뜨거운 인기 속에 여러 도시에서 회차가 추가되고 있다"며 "앞서 미국 탬파·스탠퍼드·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해 페루 리마,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호주 멜버른에서도 1회씩 추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은 K팝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앞으로 일본과 중동 일정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투어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데뷔 40주년 이승철 KBS 추석 대기행 무대 선다

8월 1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서

가수 이승철이 데뷔 40주년을 맞아 KBS 추석 대기행의 주인공이 된다.

KBS는 8월 1일 오후 5시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당신의 삶은 내버런딩 스토리-이승철'을 선보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이승철이 밴드 부활의 보컬로 부른 히트곡이자 그의 대표곡인 '내버런딩 스토리'를 메인 콘셉트로 기획됐다. 40년간 사랑받은 이승철의 음악을 통해 대중의 삶을 돌아보는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제작진은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공연을 준비 중"이라며 "이승철의 음악과 함께 걸어온 국민들의 추억과 감동이 되새기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매해 추석 연휴 나훈아, 심수봉, 박진영, 조용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무대를 펼치는 추석 대기행을 선보여 왔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추석 연휴 기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연합뉴스

신민아, 스릴러 영화 '눈동자' 서 시력 잃는 쌍둥이 역 "1인 2역... 한 화면에 두 얼굴, 재미 느껴"

오는 24일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눈동자'는 배우 신민아에게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쌍둥이 언니 서진이 동생 서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쳐가는 이야기에서 신민아는 언니와 동생을 모두 연기하는 1인 2역을 소화했다.

서진이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유전병을 앓고 있다는 설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연기도 했다. 빛에 대한 반응이 둔감한 탓에 사시처럼 두 눈동자의 초점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해야 했다. 붕대로 실제 눈을 가리고 연기도 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신민아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다"는 취재진 말에 수긍했다. "맞아요. '고생 중독자'예요.(웃음)"

그의 고생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작품의 매력에 이끌렸다. 작업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그를 출연으로 이끌었다.

신민아는 "서진이 처한 상황에 많이 공감했고 그가 서인이를 향한 마음으로 비밀을 찾아가는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은 점도 재미있었다. '스릴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에는 서진이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와 함께 서진이 스포터 현민(이승룡 분)에게 쫓기



영화 '눈동자' 배우 신민아.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예술가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표현을 위해서는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두 눈동자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끔 연습했다. 어려워 보이는 연기인데도 그는 "눈도 근육이니까 연습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신민아는 스포터에게 쫓기는 서진을 연기하면서 몸이 공포라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계속 너무 공포에 떨다 보니 목에 담이 와 버렸다"며 "급박한 상황이 가짜 같이 안 느껴졌으면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신민아는 그러면서도 영화에 여러 무서운 순간이 잘 담겼으며 "헛된 고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클로즈업도 많고 해서 큰 스크린을 통해 볼 때 그런 세세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한국 영화가 극장에서 사랑 받는 흐름을 타고 저희 영화도 영화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아는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2010), '갯마을 차차차'(2021) 등 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 스릴러 작품 '눈동자'를 비롯해 여러 장르에 도전해왔다. 지난해 12월 배우 김우빈과 결혼한 이후에도 도전 정신은 변함없다며 여러 경험이 자기 연기에 녹일 바랐다. 연합뉴스

송가인, 가족돌봄아동 위해 기부... 특별무대도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가수 송가인이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송가인은 오는 20일 오전 10시40분 방송되는 MBN 나눔 프로그램 '기적의 시작: 함께 온(ON)'에 출연해 가족돌봄아동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특별 무대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초록우산과 MBN이 공동 기획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버지를 여읜 뒤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간호사를 꿈꾸는 16세 지현이, 관절염을 앓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판소리 유망주 하랑이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연합뉴스



송가인. 제이제스타 제공

당 축 선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노형동갑



양 경 호

외도-이호-도두동



송 창 권

삼도1-2동



정 민 구

대정읍



이 경 철

자랑스러운 대정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정정우회 회원 일동

회 장 김영옥 직전회장 김군학 수석부회장 양수진 사무처장 임영근
부 회 장 강동원, 강성인, 고관용, 고철진, 김경후, 김명준, 김승중, 김승철, 김양근, 김영배, 김태석, 김형섭, 백종훈, 선은수, 송정훈, 송창권, 양경호, 양금필, 유진희, 이병철, 이춘호, 임기숙, 정민구, 정재희, 허경중, 허평식, 현동수
감 사 임철용, 문정홍
향우회장 상모1리 양금필, 상모리(대동) 송호림, 하모리 이춘호, 동일리 송정훈, 일과1리 정상백, 인성리 박용이, 안성리 고방수, 신평리 송병문, 가파리 허재훈, 영락리 김성협, 무릉1리 강명남, 무릉2리 고철진, 신도1리 김성남, 신도2리 백종훈, 신도3리 이영은